

금요 양성 2026년 4월 3일

우리는 회칙에 대한 사순시기 연재를 마치면서 성 프란시스 지구형제회 JPIC 회장인 Patricia Grace, OFS 가 제공한 특별 묵상 기도를 묵상해 봅니다. 오늘 성 금요일에, 삶의 회칙에 도움을 받아 주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좋은 시간입니다..

**재속프란치스칸 회칙에 기초를 둔  
프란치스칸 아침 기도**

**모든 찬미**

(각자 자신의 말로 오늘의 지향을 표현하는 서두를 시작함. 예를 들면, “온누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하느님, 오늘 아침 당신 앞에 서서, 복음에서 삶으로 에서의 ----을 살 것을 결심합니다. 등등”)

복음에서 삶으로, 삶에서 다시 복음으로  
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 
성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 
완전한 내적 회개를 추구합니다.

기도와 관상을 통하여  
거룩한 어머니에 대한 신심으로  
예수님의 구속적인 순명에 내 자신을 일치시키고  
단순한 삶의 양식을 따릅니다.

그리하여, 나는 사랑 안에서 어디서든 자유로이 우리 주님을 따르고.  
살아있는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며  
의도적인 봉사의 행위와  
정의를 위해 창의적인 실천에 참여합니다.

나는 나의 일과 타인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 
내 가정안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 
살아있는 모든 것의 우주적 친족 관계를 존중할 것이며  
온 인류 가족내에서 일치와 조화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

## 모든 찬미

몇가지 질문 제시:

1. 성체적 삶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 옵니까?
2. 의도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 어떻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세상안으로 가져오며, 또 어떻게 가져오기를 바랍니다까?
3. 기도와 묵상은 매일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계획하기를 바랍니다까?